

주 5일 근무제

주 40시간 노동으로 충분한 여가를

활기찬 일터 밝은 가정 '특효약'

삶의 질

-15대 과제-

오상석 기자

“회사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휴가때 아니면 꿈도 못꾸던 국내 여행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회사 동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회사에 대한 소속감도 한층 강해졌어요.”

유아교육 전문회사인 (주)한솔교육(서울 마포구 도화동) 상품개발본부에서 일하는 조성희(33·여) 과장은 회사가 지난 1월부터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면서 출근길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좋아하는 여행을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살아왔으나 이제는 한달에 한번은 1박2일 여행을 즐기고 있다.

회사 안에 여가를 즐기려는 서클들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

국토기행 서클인 '화선지', 여행 동호인의 모임인 '도화지' 등이 창립됐고 등산반이나 볼링클럽과 같은 기존 서클들도 회원수가 늘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화선지'는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교재삼아 월 1회 국토기행을 할 뿐 아니라 연 2회씩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사회봉사활동 계획도 잡아놓고 있다.

쉬는 토요일 여행·동아리 활동

요즘 들어 이렇게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부쩍 늘고 있다.

매주 토요일 반일근무를 하는 대신 한달에 두번은 전일 또는 오후 3시 까지 근무하고 두번은 아예 쉬도록 하는 이 제도는 전체 노동시간은 큰 차이가 없으면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1~2년 사이에 많은 회사에 도입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공무원들도 격주 토요일은 쉬고 있으며 한라그룹, 동국제강 등 국내 1백대 기업 중 절반 가량이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등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토요일휴무제가 '경영 선진화'를 상징하는 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난 1월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도입한 이후 (주)한솔교육 사원들엔 새로운 활기가 넘친다. 사내 국토기행 서클인 '화선지' 회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1박2일 여행계획을 짜고 있다. 이정우 기자

대기업 절반이 격주 실시 노·사 모두 만족도 높아 달라진 노동과 여가의 '질'실감...생산성 바탕돼야

토요일휴무제의 장점으로 '여가확대 및 재충전 기회 제공'이 꼽힌다. 여가의 확대로 근로의 질이 달라지고 가정과 사회생활의 질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토요일 휴무제 실시를 통해 직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일반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

지난 70년대 초반부터 일찌감치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 아이비엠의 한 관계자는 “능률이 오르지 않는 토요일에 회사문을 닫음으로써 중식비용, 전기·전화료 등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요일휴무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우경제연구소 한진수 박사는 “토요일휴무제 확산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단축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둔화시키고 여가와 관련된 소비의 증대와 저축을 하락을 가져와 물가불안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 박사는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만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 나라의 근로시간이 긴 이유는 경기호황에 따른 작업물량 증가와 낮은 노동생산성 때문”이라며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 연속성 떨어진다” 반론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토요일휴무제는 대부분의 경우 노사 모두에 만족을 주며 뿌리내리고 있다.

지난 93년부터 대부분의 계열사에 토요일휴무제를 도입한 엘지그룹의 한 임원은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작업능률과 창의력을 향상시켜 일단 성공을 거둔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토요일휴무제는 주5일 근무제로 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우리 나라도 조만간 주5일 근무제가 널리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5일 근무제는 무엇보다 직원들에게 시간적으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주5일 근무제는 현재로서는 한국아이비엠, 한국휴렛팩커드 등 주로 외국계 회사들과 한독약품 등 일부 제약회사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와 함께 서서히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 가운데 제조업의 경우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연·월차 휴가에서 토요일휴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당 44시간 노동제라도 토요일휴무제가 가능하면 법정 노동시간이 2~4시간 단축된다면 주5일 근무제가 가능해진다.

노동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앞두고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우리 나라도 노동시간 단축과 근로형태의 선진화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이제 장시간 노동으로 경제성장을 꾀하는 시기는 지나갔으며 이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른 근로의욕 고취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 과제선정 자문위원

정주연(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경제실장·경제학박사)
이정식(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
김유선(민주노총 정책국장)